

수능엔 비문학

언어영역

PART 3  
비문학

D r e a m   m a t r i x



## 수능 기출 문제

인 | 문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1쪽

001 ~ 0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정 :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 001 내용의 이해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_1점

-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 ②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 ③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 ④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 ㉡ ㉢ 이 글에서는 자산이 단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과 개혁의 결과가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는 자산의 생각이 첫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자산이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고,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 자산은 귀족의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단행하였다. 백성의 개간을 허용하고, 중간 계급도 정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 자산의 개혁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며 성문법의 도입으로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 자산은 중간 계급도 정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귀족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형법을 성문화하여 법치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귀족들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산의 개혁으로 인해 법과 관련된 자신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치 전통은 오히려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산의 정책이 지니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 귀족들이 임의로 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던 일을 막고 형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전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법 적용을 받게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려면 글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자산의 정책은 귀족들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즉 백성들이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리고 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002 반응의 적절성 판단 위 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백성 :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 ② 백성 :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 ③ 백성 :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군.
- ④ 귀족 :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 ☑ 귀족 :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겠군.

### 003 관점에 따라 중심 내용 비판하기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 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① 해 (보기)의 노자 사상은 통치자들의 무위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으로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해체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자신의 정책은 자연의 원리에 인간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성질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책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등의 폐단을 낳은 정책이었을 뿐이다. 이는 곧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생각한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는 자연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현실주의적 개혁이 백성들에게 안정이나 혜택을 가져온 정도 있지만, (보기)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한 인위적인 개혁은 인간 생활에 많은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이 (보기)의 관점이다.

② 해 '집정'은 '정권을 잡는 일, 혹은 그런 관직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화'는 '재앙'을 의미하고, '복'은 '복되고 영화로운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개간'은 '황무지를 개간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는 말로서,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상'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자' 등의 예로 활용되는 단어로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⑤ '농후'의 '농'은 '질은 정도'를 나타내고, '후'는 '두텁다'의 의미를 지닌 말하므로, 이는 '어떤 경향이나 기색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 004 사전적 의미 이해 ①~⑤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② ㉡: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③ ㉢: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④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⑤ ㉤: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예 | 술

\*정답 해설: &lt;정답과 해설&gt; 11쪽

005 ~ 0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수능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 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A. L. 웹버는 대표작 <캐츠>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 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이지 않을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 005 핵심 개념의 파악

###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 ㉠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
- ㉡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
- ㉠과 ㉡이 적용되는 예술 장르는 서로 다르다.
- ㉡은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 이론이다.
- ㉡은 ㉠에 비해 더 진지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다.

㉠ ㉡ 이 글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보고,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자율성을 참된 예술로 여긴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요시하고,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본문에서는 ㉠과 ㉡ 두 이론을 모두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마지막 문단에서 ㉢이 여전히 지지를 받는 예술관의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이 ㉠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 ㉡ 뮤지컬을 바라버티 소로 바라보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뮤지컬을 볼 때에는 내용의 충실한 전달보다는 기발한 무대,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가 중시된다. 따라서 원작에 상관없이 춤과 노래가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본 ㉠이 '최근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작품의 주제 구현을 중시하고 있다. ㉢ 노래의 가사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으므로 내용적인 관점의 감상이다. ㉣ 조명과 의상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원작의 주제 즉, 내용적 요소와 연관 지어 감상하고 있다. ㉤ 노래의 내용이 인간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것 역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상한 것이다.

#### 사례 분석의 적절성 판단

## 006 <캐츠>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 ㉡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에서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
- ㉢ 늙은 암고양이의 회한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 ㉣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 ㉤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 007 다른 사례에의 적용

###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종합 예술의 기원인 ㉡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 ㉠ ㉡는 즐거움의 제공을, ㉣는 교훈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군.
- ㉡ ㉡는 자기 연관적이지만, ㉣는 외적 연관에 의해 지배되는군.
- ✓ ㉡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는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군.
- ㉠ ㉡와 ㉣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높이 평가될 수 있군.
- ㉤ ㉡와 ㉣는 모두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레뷰'라고 볼 수 있군.

㉠ ㉡ ㉢ ㉣는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고,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고 했으므로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는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는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고 했으므로,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된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는 '미적 유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 ㉢ ㉣는 소홀하게 보아 넘김의 의미를 지닌 등한시(等閑視)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갈별이란 뜻이다. ㉡ '천시'는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김이란 뜻이다. ㉢ '문제시'는 논의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으로 삼음이란 뜻이다. ㉤ '이단시'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 종교 따위를 이단으로 봄이란 뜻이다.

## 008 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_1점

- ㉠ 멸시(蔑視)한다면
- ㉡ 천시(賤視)한다면
- ✓ ㉢ 등한시(等閑視)한다면
- ㉣ 문제시(問題視)한다면
- ㉤ 이단시(異端視)한다면



기 | 술

※ 정답 해설 : &lt;정답과 해설&gt; 12쪽

009~0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수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 포인터:  | 저장소  |
|-------|------|
| 0000: | 산 이름 |
| 1000: | 백두   |
| 1001: | 설악   |
| 1002: | 지리   |
| 1003: | 한라   |
| 1004: |      |
| ⋮     |      |

&lt;그림 1&gt; 배열

| 포인터:  | 저장소            |
|-------|----------------|
| 0000: | 산 이름    다음 포인터 |
| 1000: | 백두    1008     |
| 1002: | ㉠    ㉡         |
| 1004: | 지리    1006     |
| 1006: | 한라    ---      |
| 1008: | 설악    ㉢1004    |
| ⋮     |                |

&lt;그림 2&gt; 연결 리스트

㉡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세부 정보의 확인

00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
- ② 자료 접근 과정은 사용하는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 ③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
- ④ ‘연결 리스트’는 저장되는 전체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편리하다.
- 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한 저장소에는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답 ③ ㉢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연결 리스트’이다.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다. ‘배열’은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포인터’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진 자료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말한다. ② ‘배열’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구조에서 자료 접근 방식은 다르다. ④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하는 경우에 편리하다. 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와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므로 한 저장소에 세 가지 정보가 저장된다.

답 ① ㉢ ‘배열’은 자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삭제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에 비해 길 수 있다. ‘연결 리스트’의 경우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편리하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②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기 때문이다. ③ ㉢은 ㉠에 비해 자료의 삽입이 간단하기 때문에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더 짧다. ④ ㉢은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므로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⑤ ㉢은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010

①~㉢에 대해 &lt;보기&gt;의 실험을 한 후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은? \_3점

「보기」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였다.

\* 단, 충분히 많은 양의 자료로 충분한 횟수만큼 실험을 하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자료의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함.

- ① ㉠은 ㉢에 비해 삭제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②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③ ㉢은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④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⑤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sup>1)</sup>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sup>2)</sup>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

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sup>3)</sup>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011 세부 내용의 일치·불일치 파악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_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답 ③ ㉠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율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교황청은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 번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② 율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고,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④ 율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⑤ 첫 문단에서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었다고 하였다.

## 012 적절한 반응의 추리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참** **회** **개** **월** **일**은 논 보이는 태양의 등출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황선년과 고구려의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레고리력이 태평양으로 보름달의 주기는 관측이 첫  
[오답 피하기] ① 춘분점 지나서 첫 보름달이 된 후 첫 백일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 규정이었다고 하였다. ② 사강의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서는 태양의 등출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 지 했고, 동양의 관례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③ 그레고리력의 1년은 위귀년 365일의 평균값, 365일 5시간 49분 16초이고 보름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는 상태태양력의 열두 달은 354일이다. ④ 윤일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1년이 354일에 한 달을 추가한 것이고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다.

013 정보 간의 관계 파악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 ㉢ ㉤** ㉢은 ○보다 후에 나타난 것으로,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전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했기 때문에 잘이 더 잘 들어맞는다.

[오답 이유]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 이므로 1700년은 평년이다. ㉣에서는 4년마다 윤일이 오기 때문에 1700년은 윤년이다.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고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기 때문에 4와 배수인 해는 모두 윤년이 되는 ㉣보다 윤년이 자주 들어온다고 잘 수 있다. ㉣ ㉢은 잘이 더 잘 들어맞는다고 하였다. ㉤ ㉢은 종교적 필요 때문 일상생활의 감각으로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 ⑤** (보기)의 식당 중심은 태양,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철수는 지구에 대응한다. 철수가 폭포가 넘기까는 창가 위치에 출발하여 다시 폭포가 넘기까는 창가 가까운 곳에 걸린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대응한다. 폭포가 넘기 가까운 창가 있는 항해에 대응하는데, 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에 놓였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성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철수가 원래의 식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응한다.

**014**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60초가 걸렸다.

- | 가                                      | 나   | 다   |
|----------------------------------------|-----|-----|
| ①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015 문맥적 의미 파악  
②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답 ③ 해** ⑥는 자위나 신공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라는 문장의 '으로'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언 | 어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2쪽

**016~0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되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㉓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㉔ ‘밟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㉕ ‘어둑새벽’, 그리고 ㉖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  
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쥬’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  
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 016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③ ④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으나 ‘두디쥬’두더지’의 어  
형 변화로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첫 문장에서 ‘두더지’는 현재 단일어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  
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통사적 합성어) 혹은 그렇지 않느냐(비통사적 합성어)에 있다고 하였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합성어(통사적 합성어)도 있지만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으므로 잘못된 이해이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숫’인데, ‘숫’으로  
형태가 변했고, 동사 ‘숫다’는 소멸되었다고 하였다.

③ ④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귀엣’은 ‘귀(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짜임새가 같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가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현대 국어에서는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이라고 쓰는 표현을 15세기  
에는 ‘거우루엣 제 그르멜’이라고 썼다는 것이므로 타당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  
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제)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  
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  
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15세  
기 국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어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  
성어로 이해될 수 있다.

## 017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  
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  
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  
겠군.

## 018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 바꿀 말 | 재료가 되는 말 | 방법 | 가상의 순화어         |
|------|----------|----|-----------------|
| 샤프펜슬 | • 가락     | ㉠  | 가락연필 .....①     |
|      | • 뻐뻐하다   |    | 뻐뻐한연필 .....②    |
|      | • 연필     | ㉡  | 뻐뻐한연필 .....②    |
| 스캔하다 | • 읽다     | ㉢  | 읽어 갈무리하다 .....③ |
|      | • 갈무리하다  |    | 읽어 갈무리하다 .....③ |
| 스파게티 | • 부드럽다   | ㉣  | 부드럽국수 .....④    |
|      | • 새콤달콤하다 |    | 부드럽국수 .....④    |
|      | • 국수     | ㉤  | 새콤달콤국수 .....⑤   |

㉠ ㉡ ㉢ ㉣ ㉤은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와 ‘갈무리  
하다’가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② ‘뻐뻐한’이라는 용언의 관형  
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④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  
한 것이다. ⑤ ‘새콤달콤’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  
이다.

사 | 회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3쪽

019~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수능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  
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  
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  
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  
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  
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  
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  
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



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 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 ㉣ 이 글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 같은 유형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채권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네 번째 문단에서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금리가 채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첫 번째 문단에서 채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채', '회사채' 등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 019 서술 방식의 파악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④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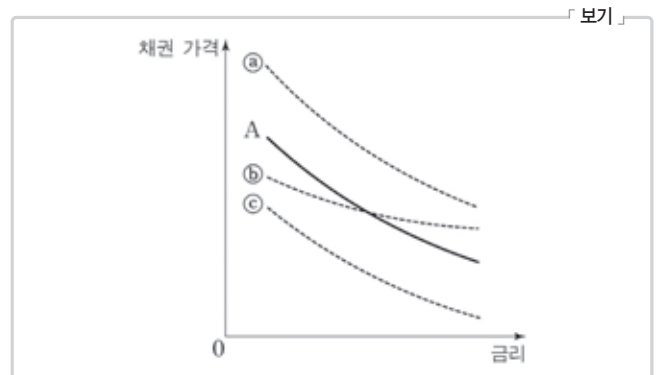
### 020 미루어 알기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 ㉣ 지급 불능 위험이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급 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그래서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채권의 현재 가치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은 채권의 액면 금액이 아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 때 투자자는 더 많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⑤ 지급 불능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순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 있다.

㉢ ㉣ <보기>의 그래프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에서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채권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가 적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그래프에 적용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였다. A와 비교하여 금리와 관계없이 채권의 가격만 하락한 것은 C이다.

### 021 그래프를 통한 정보의 이해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
|-----|---|
| ㉠   | ㉡ |
| ① a | c |
| ② b | a |
| ④ c | a |
| ⑤ c | b |

## 평가원 기출 문제

과 | 학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3쪽

02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17세기에 수립된 ㉠ 뉴턴의 역학 체계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취급하였는데 공간 좌표인  $x, y, z$ 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즉,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이며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는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은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시간의 절대성 개념은 ㉡ 아인슈타인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광속을  $c$ 라 하고 물체의 속도를  $v$ 라고 할 때 시간은  $\frac{1}{\sqrt{1-(v/c)^2}}$ 배 팽창한다. 즉, 광속의 50%의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약 1.15배 팽창하고, 광속의 99%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7.09배 정도 팽창한다.  $v$ 가  $c$ 에 비하여 아주 작을 경우에는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v$ 가  $c$ 에 접근하면 팽창률은 급격하게 커진다.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다. 따라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지연이 생긴다.

02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시간 팽창'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계 바늘보다 빨리 움직인다.
- ②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때, 지구에 정지해 있을 때보다 천천히 늙는다.
- ③ 사고로 갇혀 있는 조난자는 갇히기 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다.
- ④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평소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
- ⑤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별의 폭발 장면이 지금 지구에서 관측된다.

② ③ '초고속 우주선'을 타는 경우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므로 시간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팽창되어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시간에 따른 사람의 노화도 서서히 진행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미미하다. '물체의 속도( $v$ )가 빛의 속도( $c$ )에 비하여 아주 작을 경우에는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시간 팽창의 예로 부적절하다. ③ ④ 물체의 이동이 나타나는 사례가 아니므로 시간 팽창과 관계가 없다. ⑤ 빛이 이동하여 지구의 관측자에게까지 도달하는 시간인므로 시간 팽창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023

비판의 적절성 판단

㉠의 입장에서 ㉡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은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이지 않다.
- ㉡ 상대 시간 개념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 ㉢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이므로 우주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 시간과 공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관련성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 ㉤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반대로 흐를 수 있으므로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② ③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고 뉴턴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따라 운동 속도가 무한히 크면 그렇지 않을 때와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뉴턴을 비판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상대 시간 개념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다르다. ③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지, 시간을 인위적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다. ④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라고 보았다. ⑤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팽창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며 시간의 역행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언 | 어 | 생 | 활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3쪽

024~0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분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

[A] 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피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필경사 :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024 핵심 내용 파악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① 음독 | 비판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② 음독 | 분석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③ 음독 | 분산형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④ 정독 | 분석적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⑤ 정독 | 비판적 읽기 | 분산형 독서 |

㉠ ② ㉡ 고대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있어 독자는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이 보편적이었다. 12세기 유럽 수도원에서 묵독이 등장하면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고, 이 시기에 책자형 책의 등장으로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 재독하기가 편리해져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가 가능해졌다. 18세기 중반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다독이 등장하였고,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발달했다. 20세기 후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자 검색형 독서(㉢)로 불리는 독서 방식이 등장하였으며 이때 독자들의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 025 세부적 내용 이해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는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묵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 ② ㉡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는 음독 중심의 독서 방식이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책자형 책이 등장하면서 책의 여백에 주석을 달 수 있고, 앞부분을 재독하기도 쉬워져 묵독의 확산을 도왔다. [오답 피하기] ①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만이 독서 대상이었고, 여러 번 정독해야 하는 필독서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③ 음독의 독서 방식 시대에는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들이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묵독의 시대가 되면서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등장하게 되었다. ④ 띄어쓰거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면 이어 쓰는 표기법에 비해 문장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다. 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층인 독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에 대한 수요를 이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① ㉡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독자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의해 정보를 고를 수 있고 텍스트를 조합할 수도 있는 검색형 독서 방식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①과 같이 묵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묵독 시대처럼 꼼꼼하게 읽는 분석적 읽기 방법보다는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해졌다. [오답 피하기] ②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텍스트라는 개념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③ 독자의 필요에 의해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다른 텍스트에 추가할 때, 원 저자의 허락이 없었거나 표절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④ 종이 책으로만 존재했던 자료들이 전자 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는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정보 처리적 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026 반응의 적절성 판단

[A]의 독서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절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은 묵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돼.
- ②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기와 쓰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원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기기 쉽겠어.
- ④ 기존의 종이 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 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어.
- ⑤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



027 ~ 0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①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경상 수지 : 상품(재화)과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 개괄적 정보의 확인

## 027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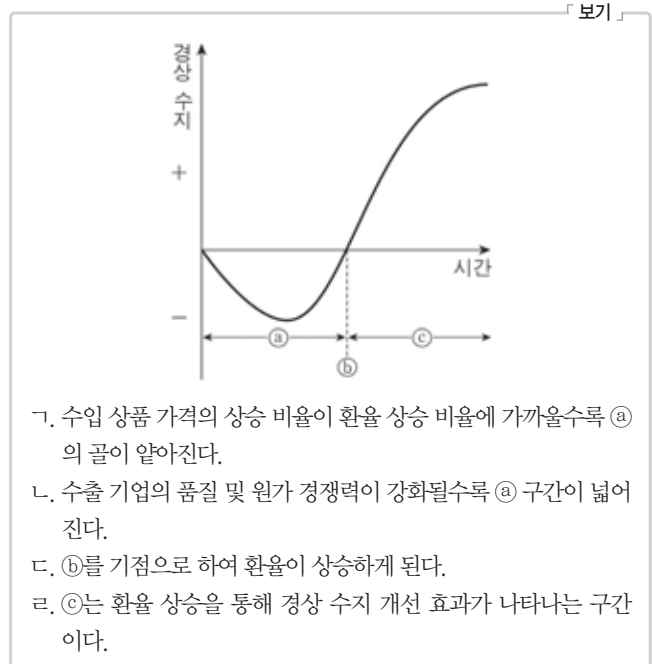
답 ⑤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구사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문에 제시된 바처럼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환율 정책이 필연성이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④ 이 글은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환율이 상승하면 대개 경상 수지를 개선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답 ②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즉 ㉠ 구간의 경상수지가 - (마이너스)인 이유는 환율의 상승 비율 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와 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지체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곡선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구간은 경상 수지가 + (플러스)에 해당하며 점점 상승하고 있으므로 점차 경상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치지는 구간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래로 치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즉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기대지 않고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J커브 현상'은 환율 상승을 전제로 하므로 ㉡가 아니라 원점에서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은 경상 수지가 + (플러스)로 돌아서는 기준점이다.

## 그래프 자료의 이해

## 028 위 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029 이유의 추리

###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의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 ③ 해 ㉠의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환율 상승할 때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후에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국내 기업이 환율의 안정성을 살펴본 후 가격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은 아니다. ⑤ 세 번째 문단의 첫 부분에서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경상 수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해 ㉠은 수출 기업이 환율의 상승만을 믿고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므로 이런 상황에는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 그 입만으로 홍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②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 상황을 헤쳐 나오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③ 가난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④ 재주가 많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⑤ 한 가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욕심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 관용어의 이해

## 030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_\_\_\_\_ 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예 | 술

\*정답 해설 : &lt;정답과 해설&gt; 14쪽

031 ~ 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가 음악사학자들은 서양 음악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찾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향유하던 음악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분명치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 실체를 밝힐 문헌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현존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음악 그 자체보다는 이론이 어떠한지의 정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음악은 기예 영역이라기보다 학문적 영역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에 ㉠ 내 재한 수학적인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음악에서 수학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 “만물은 수(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하여, ㉣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가 ㉤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도와 한 옥타브 위의 도'는 2 : 1, 도와 솔의 5도는 3 : 2, 솔과 그 위 도'의 4도는 4 : 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이 그것인데, ㉥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기도 하다.

다 음악을 수학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음악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음악관을 비판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음악을 바라본다. 그는 ‘감각적 지각’이 수적 비율보다 음악을 판단하는 데에 더 근본적이라 주장하며, 이를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5도를 아름답다고 들었을 때, 그것이 왜 아름답게 들리는지를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로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오늘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였다.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성향은 [음악주의자]라고 불리는 후대의 많은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음악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려는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는 비판받았다.

**마**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은 논리이나 경험이나의 대조적인 사유의 두 축을 이루며,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하였다. 이 두 전통에 **⑥** 배어 있는 대립적 성향은 비단 이론뿐 아니라, 창작·연주·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031 **서술 방식의 파악**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_1점

- ① (가) : 비유적 진술을 통해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 :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며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마) :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정답 ③** (다)는 음악에서 논리를 중시한 피타고라스와 경험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대립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음악의 미적 체험을 이해하려 했던 피타고라스와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려 했던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비유적 진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② 피타고라스 음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용어의 개념 정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 단락의 내용을 이어받아 서술하고 있다. ⑤ 두 견해가 이후 음악 이론을 비롯한 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서술일 뿐 내용을 절충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보기)는 보이티우스의 음악 분류인데 차원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즉, 대우주의 수적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문다나(가)', 우주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휴마나(나)', 인간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조화를 의미하는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다)'의 세 단계이다. (가)는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의 조화이므로 악기가 내는 물리적인 소리의 조화 상태를 이루는 (가)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수(數)적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가)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행위는 (나)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④ (다)의 간단한 정수비는 음향학의 기반인 음정이 될 수 있다. ⑤ (다)은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다.

### 032 **자료를 통한 내용 추론** (보기)를 읽고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의 음악 이론가 보이티우스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의 ㉠뮤지카 문다나는 천체나 지구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수(數)적 조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인 ㉡뮤지카 휴마나는 우주 질서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조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계의 음악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뜻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물리적인 소리들이 음향학적 원칙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 ① ㉠의 생각은 ㉡로 전승되었군.
- ② ㉢의 행위에 의해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이 구현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④ ㉢이 음향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⑤ ㉡을 구현하면 ㉢이 되겠군.

### 033 **사례의 적절성 판단** 음악주의자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첼리스트 카잘스는 연주 전,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였다.
- ② 음악 애호가 영수는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 ③ 성악가 수희는 독창회 준비 과정에서 음반을 들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익혔다.
- ④ 음악 이론가 베릿은 베베른의 음악에서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 ⑤ 작곡가 노노는 악곡 설계 과정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였다.

**정답 ②** '음악주의자'는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음악적 성향이 그 특징이다. 즉 ③에서와 같이 '직접 음반을 듣는' 경험적 방법이 그와 같은 특성에 가장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①에서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는 것, ②에서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 ④에서 음악의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것, ⑤에서 음악에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 '감각적 지각'이 아닌 '수적 비율'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음악주의자'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 03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_3점

**「보기」**  
첼로를 전공하는 윤지는 음향학 시간에 배운 음정의 원리를 C현에 적용하고 있다. 윤지는 도가 소리 나는 이 C현을 12 등분하여, 확장된 비례식 12:9:8:6을 가지고 옥타브 안에 존재하는 5도, 4도, 온음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같겠군.
- ②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한 개의 온음으로 구성되었겠군.
- ④ 현 길이의 비가 12:8인 두 현을 켜면 4도가 소리 나겠군.
- ⑤ 현 길이의 비 9:8은 5도와 4도의 차이인 온음에 해당하겠군.

**정답 ⑤** 옥타브 [도-도]는 [도-파]와 [파-솔], [솔-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현 길이의 비가 12:8이면 [도-솔]에 해당되고, 이는 5도이다. 따라서 현의 길이가 12:8인 두 현을 켜면 당연히 4도가 아니라 5도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모두 5도이므로 같다. ② 옥타브 [도-도]는 5도인 [도-솔]과 4도인 [솔-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옥타브 [도-도]는 두 개의 4도([도-파], [파-솔])와 한 개의 온음([솔-도])으로 구성된다. ④ 현 길이의 비 9:8은 [파-솔]로 온음에 해당한다.

### 035 **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②와 ⑥를 공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1점

- ① 겹쳐 있는      ② 들어 있는      ③ 쏘려 있는
- ④ 안겨 있는      ⑤ 얹혀 있는

**정답 ②** ②의 '내재(內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는 의미이며, ⑥의 '배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로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는 '들어 있다'가 적절하다.

인 | 문

※정답 해설 : &lt;정답과 해설&gt; 15쪽

036~0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A]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이유 추리  
036 <보기>의 '갑'의 행동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평가할 때,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몸살로 집에 누워 있는 친구를 간호하려 가던 중,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다친 운전자를 목격했다. '갑'은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급히 응급실로 옮겨서 다행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갑'은 친구를 간호할 수는 없었다.

- ① '갑'은 전체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했군.
- ② '갑'은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이 행복해진다고 판단했겠군.
- ③ '갑'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군.
- ④ '갑'은 몸살 환자보다 다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고 판단했겠군.
- ⑤ '갑'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했겠군.

㉠ ㉡ 문제에서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선택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갑'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어진 행복의 양이 최대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갑'이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 행복해진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갑'의 행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행동한 일로 인해 얻어진 결과로서의 행복이 최대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양을 최대로 산출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여 주는 쪽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③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의 행복이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적절한 이유이다. ④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쪽으로 결정했을 것이므로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산출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⑤ 전통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고 보며,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 선악이 결정되므로 적절한 이유이다.

㉢ ㉣ 문제에서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선택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갑'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어진 행복의 양이 최대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갑'이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 행복해진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갑'이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갑'의 행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행동한 일로 인해 얻어진 결과로서의 행복이 최대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피해자를 설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은 반공리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② 목박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의 불확실성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고, 반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지닌 정의의 개념 소홀을 비판하는 입장이므로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일에는 정의가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 없으므로 반공리주의자들이 전통적 공리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공리주의의 입장은 취할 태도로 볼 수 없다. 또 반공리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와도 관련이 없다.

반대 관점의 이해  
037 ㉠에 대해 [반공리주의자]가 예상하는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할 것이다.
- ② 증언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 ③ B 집단의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킬 것이다.
- ⑤ 가해자에 관한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038 두 내용의 비교  
[A]의 규칙 공리주의자와 <보기>의 의무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의무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산출되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어.
- ② 의무론자는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
- ③ 의무론자와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 ④ 의무론자는 규칙의 절대성을,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를 강조했어.
- ⑤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했어.

⑤ 해 <보기>의 의무론자는 좋은 결과의 산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인 셈이다. 반면, A에서 언급된 규칙 공리주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사회'라는 결론을 확정된 상태에서 그에 이르기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의 특성이다. 즉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를 상정해 좋은 상태에서 그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의무론자의 주장에 가깝다. ②는 규칙 공리주의자의 생각에 가깝다. ③ 규칙 공리주의자만이 결과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④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가 아니라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맥적 의미 이해  
039 밑줄 친 부분이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_1점

- ①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 ② 누구라도 나를 잘 따르면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 ③ 누구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 ④ 네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르면 좋은 요리사가 될 거다.
- 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에는 상을 주는 것이 맞다.

기 | 술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6쪽

040~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 $10^{-9}\text{m}$ )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10^{-6}\text{m}$ )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이다. 응답 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 저항값( $R_s$ )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 $R_{air}$ )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 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 데

⑤ 해 본문에 쓰인 '따르면'은 앞에 언급한 내용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즉 '관례나 법규 따위를 좇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 것은 원칙에 따르면이라는 형태로 쓰인 ⑤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복종하다', '준수하다'의 의미이다. ② '남을 좋아하여 붙들다'는 의미이다. ③ '본떠서 하다'의 의미이다. ④ '남의 뒤를 좇다'의 의미이다.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흡착 :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 \*탈착 :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 040 세부 정보의 확인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가스 흡착 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
- ② 인간은 후각을 이용하여 유해 가스 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회복 시간이 길어야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났다.
-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의 탈착 전후에 변화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 ㉡ 3문단에서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산화 가스, 환원 가스와 전자를 주거나 받아 흡착함으로써 저항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1문단에서 인간의 후각은 미세한 가스 농도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5문단에서 회복 시간이 짧아야 센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문단에서 산화물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늘어났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3문단에서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가 '탈착'되기 전과 후에 변화한 저항값이 아니라 가스가 '흡착'되어 변화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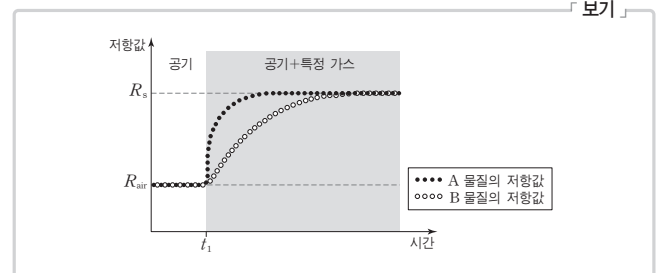
㉠ ㉡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이와 대응되는 내용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이다.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한 것'에 대응되며, '항상 분당 128~130회'였다는 것은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에 대응된다.

#### 041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①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 ② 체육 시간에 안정적인 자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박수를 받았다.
- ③ 모형 항공기가 처음에는 맞바람에 요동쳤으나 곧 안정되어 활강하였다.
- ④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며 공을 던졌으나 50 m 이상 날아가지 않았다.
- ☒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 항상 분당 128~130 회였다.

시각 자료를 통한 핵심 정보의 이해 및 적용

**042** 산화물 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_3점



- ①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②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A와 B의 저항값이 같다.
- ⑤  $t_1$  직후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다.

㉠ ㉡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t_1$ 을 지난 시점부터 A 물질의 저항값과 B 물질의 저항값이  $R_0$ 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응답 시간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며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보기> 그래프의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응답 감도는  $R_A$ 와  $R_B$ 의 차이를  $R_0$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R_A$ 와  $R_B$ 가 동일하기 때문에 응답 감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 그래프에서  $t_1$  전 단계를 보면 A, B의 저항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t_1$ 시점을 지나 저항값이 일정해지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큰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 | 문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6쪽

**043~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

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하면 그 추론은 '건전하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 043 중심 내용의 이해

위 글에 따라 추론을 구분하는 과정을 도식화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            |
|-----------|-----------|------------|
| ㉠         | ㉡         | ㉢          |
| ✓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 추론 건전한 추론  |
| ②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 추론 타당한 추론  |
| ③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④ 건전한 추론  |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⑤ 개연성이 높은 | 추론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당한 추론으로 전제가 실제로 참이기까지 한 것(㉢)은 '건전한 추론'이다. 반면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일 가능성도 높은 추론(㉡) 있는데, 이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 04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_3점

「보기」  
 남자: 이 책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다고 쓰여 있어.  
 여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  
 남자: 맞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거야.  
 여자: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 ✓ 남자의 추론은 '추론 1'과 달리 전제가 실제로 참이므로 건전하다.
- ②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추론 2'와 달리 개연성이 낮다.
-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에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④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론 2'와 같다.

㉠ ㉡ [오답 피하기] ㉠ '보기'에서 남자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다.'를 전제로 삼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농구 선수들은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여자가 지적한 바대로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가 한 추론의 결론은 거짓일 수 있다. '건전한 추론'은 결론이 참이어서 타당한 추론이면서 전제도 실제로 참인 추론이다. 따라서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이 아니며 그에 따라 '건전한 추론'도 아니다.  
 [오답 피하기] ㉡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추론이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다.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의 개연성이 낮다. ㉢ 여자는 남자에게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결론이 참일 가능성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 추론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결론이 거짓인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⑤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추론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과 | 학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6쪽  
 045~0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A]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㉔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㉔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㉔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㉔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제3기: 신생대 제3기 후반.  
\*고지자기: 과거 지구 자기장

#### 045 미루어 알기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㉔ ㉔ 첫 번째 문단에서 사막은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㉔에서는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네 번째 문단에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사막의 예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들고 있다.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해양과 차단되어 있으며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은 온대 사막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의 형성 요인이다. ⑤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성 외에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

#### 046 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A]에서 사용된 ㉔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 ㄷ.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 ㄹ.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㉔ ㉔ [A]를 보면, 가설은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를 통해 결론 내려진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은 <보기>의 ㄴ의 '기존 이론'이며,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결과'는 ㄱ의 '추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047 미루어 알기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㉔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 ① 대기 대순환                      ② 대륙의 크기
- ③ 산맥의 높이                      ④ 해수의 온도
- ⑤ 해양과의 거리

㉔ ㉔ 호주 대륙의 사막들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 사막이 형성되었으므로 호주 대륙의 사막들이 저위도의 사막의 형성 요인인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첫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8 사전적 의미 파악 ㉔~㉔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 ② ㉔: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 ③ ㉔: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 ④ ㉔: 길러서 번식하게 함.
- ⑤ ㉔: 솟아올라 높아짐.

㉔ ㉔ ㉔의 '서식'은 '동물이 깃들여 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㉔ '길러서 번식하게 함'은 '양식(養殖)'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날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 ㉡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을 닮지 않은 스타인의 초상화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자, 이에 대해 피카소는 초상화가 앞으로 그녀를 닮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피카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피카소가 회화적 재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문단에서 입체주의는 존재,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네 번째 문단에서 스타인의 초상화가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즉 어느 한순간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스타인의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려 했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다.

#### 인물의 의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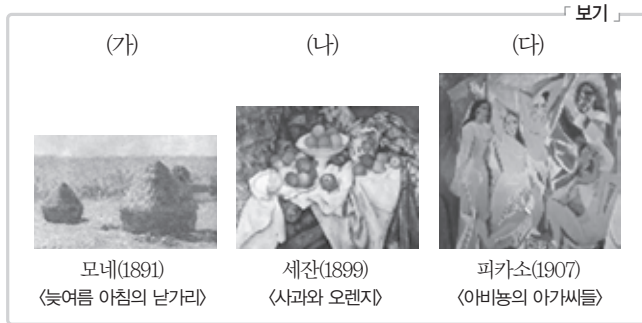
**049**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 050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③ ④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세잔은 본질이나 실재를 담아내기 위해 대상을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렸으며 윤곽선을 그리고,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가) 모네의 작품에는 원근법이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윤곽선이 뚜렷한 그림은 (나)의 세잔의 그림이다. ②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가)이다. ④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의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다. (다)의 피카소는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⑤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 그림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며, 사실성을 의식적으로 추구한 인상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③ ④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실성을 추구했으며 망막에 맺힌 대로 대상을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빛에 의해 같은 사물이라도 시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콰브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하였다. 결국 우리의 지각은 관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콰브리치와 굿맨은 인상주의자들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려 노력해도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콰브리치와 굿맨은 '순수한 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다고 주장한다. ④ 콰브리치와 굿맨은 '숨어 있는 실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눈 이외의 감각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콰브리치와 굿맨에 따르면, 사실적인 그림이란 익숙한 그림이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 관점의 적용 및 평가

## 051 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 052 근거의 적절성 파악

### 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 때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③ ④ ①은 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인데, 두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은 관습과 문화, 배경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성된다. 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작품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의 소로 불분명한 연필 자국을 나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소 때 그림에 있는 연필 자국을 소로 보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③과 ④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배경 지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콰브리치와 굿맨이 말한 사실적인 그림이란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것이라 했다. 재현 체계의 발전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 없다. ④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53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_1점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擧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③ ⑤ ㉠의 '얻다'는 문맥상 '그림의 사실성을 얻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의 의미를 가진 '획득(獲得)'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습득(習得)'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의 의미이다. ② '체득(體得)'은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또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됨'의 의미이다. ③ '취득(取得)'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④ '터득(擧得)'은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의 의미이다.

#### 사 | 회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7쪽

## 054~0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

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①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 054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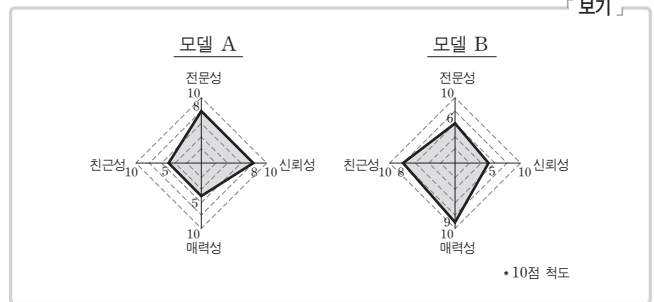
- 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해 이 글은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가며 유명인이 광고에 중복 출연하면 광고 효과가 약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055

####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위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효과를 예상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델 A가 특정 카메라 광고에 계속해서 등장할 때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모델 A가 자동차, 보석 광고 등에 중복 등장할 때 기대했던 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모델 A보다 모델 B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모델 B보다 모델 A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해 모델 A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두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이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시되는 상품의 광고에 적합하다. 반면 모델 B는 친근성과 매력성이 높으므로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의 상품 광고에 적합하다. ③과 같이 모델 B가 서로 다른 성향의 두 광고에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치약 광고에서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모델 A가 카메라 광고에 적합함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 모델이 한 상품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세 번째 문단에서 모델의 중복 출연은 이미지를 분산시켜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떨어지므로 기대만큼의 광고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하였다.

####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

### 056 위 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_3점

-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해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②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효과가 기대 이하여서 광고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 ③ 유명인 광고 모델이 현실에서의 비리나 추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광고하는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 ④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할 경우 광고의 효과가 커졌다는 사례가 있다.
- ⑤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면,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횟수가 적어도 효과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⑤ 해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유명인 모델이라도 여러 상품에 중복 출연을 하면 광고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유명인이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한 근거로는 ⑤와 같은 반증의 사례가 알맞다. [오답 피하기] ①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의 쟁점은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이며 광고 횟수는 관련이 없다. ③ 유명인 모델의 이미지 변화가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④ 일반인이 광고에 등장하는 내용은 글의 핵심 주장과 관련이 없다.

## 057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_1점

- ㉠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나왔다.
- ④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 ㉠은 광고에 '나오다'이므로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라는 의미와 가장 비슷하다.  
[오답 피하기] ②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김.'의 의미이다. ③ '어떠한 물건이 발견되다.'는 의미이다. ④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는 의미이다. ⑤ '-속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다.'는 의미이다.

기 | 술

\*정답 해설 : &lt;정답과 해설&gt;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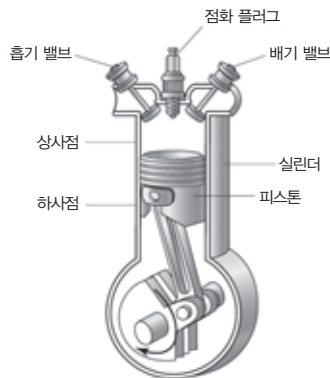
058~0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행정에서는 ㉠ 실린더를 밀폐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 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 ㉠ 두 번째 문단에서 엔진의 동력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서 엔진의 동력은 폭발 행정에서 생긴다고 했다. 즉,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혼합 기체가 폭발하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높은 이유는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의 가스가 배출되는 단계는 배기 행정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동력 발생 주기는 흡기(상사점 → 하사점), 압축(하사점 → 상사점), 폭발(상사점 → 하사점), 배기(하사점 → 상사점)이므로 4행정이 완료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셈이 된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④ 기체는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즉 혼합 기체의 흡입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엔진의 회전수, 대기압 등은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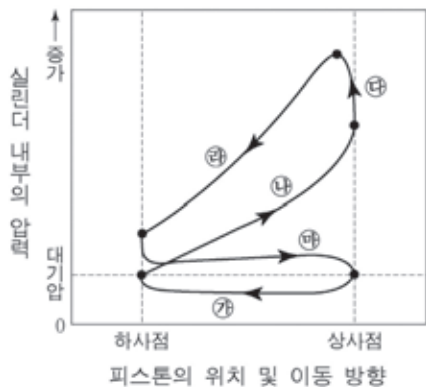
세부 정보의 파악

## 05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 ㉠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059** **그림 자료에의 적용**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은 압축 행정으로 여기에서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하며(㉠, ㉡),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가 압축되므로 실린더 내부 압력은 커진다(㉠, ㉡).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이다. [오답 피하기] 폭발 행정은 폭발 이후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밀리며 동력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 ㉡에 해당한다. 이후의 ㉢은 배기 행정이며 다시 공기를 흡입하는 흡기 행정은 ㉤이다.

㉢ ㉣ <보기>에서 해발 고도 5,000미터의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다. 이는 엔진의 실린더 외부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동차는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흡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으면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줄어든다. 그러나 연료는 해수면 인접 지역과 동일한 양이 분사되므로 혼합 기체에서는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가 부족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오답 피하기] ㉡ 적정 혼합비를 벗어나므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진다. ㉢ 배기 행정에서 외부 기압이 낮아서 오히려 가스의 배출 속도는 빨라진다. ㉣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되는 경우는 혼합 기체에 연료의 비율이 낮아서 공기가 더 많은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기압이 해수면 인접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 에너지 출력이 가장 큰 경우는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할 때이다.

**060**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언 | 어      \*정답 해설 : <정답과 해설> 18쪽  
**061~06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 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노랴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존존’에서처럼 ㉠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생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너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061 세부 정보의 파악

###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_1점

- ☑️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답 ① 해 두 번째 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세 번째 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한자를 그대로 노출한 '용비어천가'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한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네 번째 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순한글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였다.

답 ② 해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London'은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과 같이 써야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였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④, 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 062 원리 적용의 적절성 판단

###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보기」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London에 살아요.
- ☑️ 런던(London)에 살아요.
-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 ⑤ 런Lon던돈에 살아요.

## 063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o'를 사용하여 '포'를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 ☑️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 ⑤ 영어의 file을 '파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답 ② 해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문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f'를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과 같은 사례를 적용해 보면, 'f' 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⑤는 ㉡의 사례 즉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음을 표기하려 했을 때 실제로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기>의 상황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